

# “1학기 등록금 3분의1 반환해야”…대학생들, 大 상대 소송

“大 재정 어렵다며 손실 책임 학생에게 지워”

설문조사 99.3% “상반기 등록금 반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40여개 대학교

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

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재정 손실 책임

을 학생에게 넘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학 본부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구이지 반환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만 답변하며 등록금 사용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문제 해

결을 회피한다”며 “대학·교육부·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드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2718억원은 등록금의 10% 반환을 기정하고 책정됐지만, 불통으로 일관한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 이조차도 반환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상반

기 등록금 즉각 반환 △반환 논의에 학생 의견 즉각 수용 △학생 요구에 대한 응답 등도 요구했다.

이날 주최 측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9.3%에 해당하는 1만1031명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봉우 기자



## 스쿨존 주정차금지 운전자 눈높이 땅!

지난 1일 대구 중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로 130mm, 세로 200mm 크기의 흉광 고화도 반사지 시트로 만들어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대구경찰청은 스쿨존 내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차 취약 스쿨존에 주차금지 알림판 500개를 설치하는 ‘스쿨존 포인트존’을 운영한다.

## “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힘 보태겠다는 뜻 전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6차 일본군 성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린 ‘1446차 수요집회’에서 “지난 26일 이 할머니와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칭 위안부 역사교육관 건립, 한일 청년 교류 확산, 피해자 생존 지역 단체와 협의해 수요집회 진행 등에 대해 협의점을 찾았다.

그는 “정의연과 이 할머니 사이를 파고들어 오해와 갈등을 조장

하는 자, 육일기를 훔들며 정의연 해체와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옆에 서 있다”며 “이 할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위안부 운동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일본 극우들과 공명하려는 자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슬프고 아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운동을 반복 위에 세우려 한다”며 “구체적인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많은 분의 힘이 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리고 열린 귀로 들으며 함께 손잡고 해쳐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 “군의원님은 자동차 판매왕”…딜러들 ‘한숨’

장흥군 “조달청 통한 구매일 뿐 특혜없다”

장흥지역에서 자동차 판매원 출신이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관용차 판매를 독식한다는 딜러들의 불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장흥 주민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장흥대리점 대표를 맡고 있는 A씨가 지난 2014년 장흥군의회에 입성하면서 일반 판매사원들의 장흥군 관용차 판매 실적이 뚝 떨어졌다.

10여명의 자동차 판매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매년 장흥군에서 구매하는 관용차에 대한 판매실적을 고루 나눠 가져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지역대리점 대표인 A씨가 지난 2014년 6월 군의원에 당선되면서 장흥군의 관용차 구매가 현대차에 집중됐다는 불만소리가 터져나왔다.

또한 장흥군에서 구매한 현대차 판매실적은 모두 A의원에게만 돌아갈 뿐 현대차의 다른 판

매사원들에게는 수당이 제공되지 않았다.

2016년 4월에는 장흥군의회가 의장 관용차를 현대차 제네시스로 교체해 A의원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장흥군이 관용차를 현대차로 구매한 현황을 살펴보면 A의원 당선 첫 해인 2014년 6대, 2015년 5대, 2016년 4대, 2017년 5대, 2018년 8대, 2019년 4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5대의 차량을 구매한 상태다. 지난 6년간 장흥군 관용차로만 37대를 구매한 셈인데, 물론 이에 따른 실적은 전부 A의원에게 돌아갔다.

이 기간 장흥군이 구입한 자동차는 모두 72대로 A의원이 절반을 넘게 판매한 셈이다.

장흥지역 한 자동차 판매사원은 “A의원이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용차 판매를 거의 썩쓸이

하다 보니 일반 자동차 딜러들은 군정 관용차 판매 영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장흥군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조달청을 통해 자동차 회사 분사하고 구입 계약을 한다”며 “A의원의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하자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 구매 선호도가 높다 보니 자연스레 A의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사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의원 또한 “군에서 현대차와 계약을 하면 당연 지역 책임자인 나에게 오더가 오고 본사를 통한 계약은 수당도 절반밖에 받지 못 한다”며 “장흥군의 현대차 구매 내역을 보면 광주나 충남 당진지점 등에서도 구매한 것만 봐도 특혜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오유나 기자

## 편의점 치킨 사려다 퇴짜 ‘상처’…아동급식카드 바꾼다

지자체별 구입 가능 물품 달라 아이들 ‘혼선’

앞으로 아동급식카드 이용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형태로 전환한다. 이 카드를 이용해 구입할 수 없는 물품만 적시하고, 나머지 물품은 자유롭게 사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별로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물품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되

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일번음식점,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구입할 수 있는 물품과 결제가 안 되는 물품이 ‘결식이동금

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제가 안 되는 물품이 다르다고 모호하게 규정됐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 사는 치킨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치킨을 사기 위해 사용한 아동급식카드 결제가 안 되면, 아동들은 크게 당황하고 심리적 상처 또는 낙인감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승호 기자

# NO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